“졸업하면 후련?…불안한 미래에 졸업 이후가 더 고민”

광주지역 대학 졸업생들에게 들어보는 취업난 현실

두려움·막막함 속 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고물가에 취업준비 부담도
사회 진출 대신 궁여지책 대학원 진학 늘어…“취업 지원정책 더 많아지길”

임다은 조선대 무역학과

한균호 조선대 법학과

한세린 전남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양지원 전남대 농생명화학과

정예진 전남대 바이오에너지과

4년만의 대면 졸업식을 진행한 광주지역 대학가에서는 올해도 좁아진 취업난에 졸업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생활의 마침표가 ‘취업’이 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높은 취업 문턱에서 광주·전남 졸업생들은 취업을 못해 자기계발과 취업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졸업생들은 사회로 나가기 보다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26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난 24일, 호남대는 지난 23일 각각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는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졸업식을 치렀다.

24일 전남대와 조선대 캠퍼스에서 만난 졸업생들의 얼굴엔 미소가 한 가득이었다. 자녀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로 캠퍼스는 붐볐다. 축하 현수막, 꽃다발과 함께 가족, 친구들과 마스크를 벗은 채 사진 찍으며 대학 생활의 추억을 남기는 이들의 모습은 들떠있었다.

하지만 졸업생들은 마냥 즐거워 하지는 못했다. 당장 취업문을 넘지 못한 졸업생들은 졸업식이 끝난 다음날부터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이 깊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만난 6명의 졸업생 중 절반인 3명은 취업준비를 앞두고 있었다.

올해 호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이동현(25)씨는 “영상 편집, PD, 광고 등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서 “원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을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한 두려움과 막막한 감정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영상편집 학원을 다니면서 일러스트, 포토샵 등 취업에 도움 될 만한 자격증도 공부를 할 계획이라는 이씨는 “물가가 올라 취업에 앞서 금전적 압박을 받는다. 오로지 취업에 힘을 쏟아 붙기도 어렵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소프트웨어공학과를 졸업한 한세린(25)씨는 자기계발을 선택했다. 한씨는 졸업 후 반년 간 인공지능 관련 K-디지털트레이닝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이라는 한씨는 “취업난으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마음껏 재량을 뽐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임다은(24·조선대 무역학과)씨도 아직 취업하지 못했지만, 당분간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낼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시간에 쫓겨 취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임씨는 “일단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 고민해보겠다”면서 “공무원 혹은 전공을 살려 무역관련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서둘러 취업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취업준비보다는 학교에 남기로 한 졸업생도 있었다.

동일 전공의 대학원행을 선택한 양지원(25·전남대 농생명화학과)씨는 전남대 생태시스템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거치며 논문 발표와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씨는 “같은 시기, 같은 나이에 졸업한 지인들이 취업, 창업 등을 하는 모습을 보며 조바심도 들고 진로에 생긴 확신도 옅어지곤 했다”며 “그동안 ‘졸업하면 후련하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졸업하고나니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예진(22·전남대 바이오에너지공학과)씨도 취업보다 대학원을 택했다. 정씨는 학부와 같은 전공의 석사 진학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학과 연구실에 출근하며 전공 관련 실험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이들처럼 취업을 하지 않은 대졸자들이 대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대학원 입학생은 1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학원생 수가 늘어난 것은 청년 실업과 관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데다, 공기업 등 공공 부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느라 청년 채용을 줄이면서 갈 곳을 잃은 대졸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도 스스로 계발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한균호(27·조선대 법학과)씨는 졸업 전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업했다. 몇 년 간 회사에서 사회경험도 쌓고 돈을 모으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씨는 “취업했지만 미래가 불안한 것은 여전하다”면서 “현재 직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일한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이와 함께 안정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무사 등 전문직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한파에 여수 양식장 물고기 123만마리 폐사

20여곳 41억 피해…원인 규명 나서

여수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123만마리가 집단 폐사해 관계 기관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여수시는 돌산면과 남면, 화정동과 월호동 등지 20어가 양식장에서 총 123만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원인파악 중이다고 26일 밝혔다.

양식장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참돔, 감성돔, 참조기, 부세 등이며 이날 현재까지 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시는 집단 폐사의 원인을 평년보다 낮은 저수온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신고한 20어가 중 2어가는 저수온 피해로 판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에서 양식을 하는 총 261어가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31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저수온에 따른 피해 특약을 맺은 어가는 5.3%(14어가) 라는 점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현재 여수지역 바다 수온(신월·백야·화태·군내)은 7~9도 사이지만, 여수 연안인 가막만과 여자만은 저수온경보가 발령됐다가 지난 17일께 저수온주의보로 변경됐다.

저수온주의보는 바다 수온이 4도로 떨어지면 내려지고 4도 이하가 3일 이상 유지되면 저수온경보가 발령된다.

여수시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에 넘겼다.

여수시 관계자는 “보온덮개·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사료 공급량 조절, 비타민제와 영양제 공급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 곳곳 화재…여수선 80대 사망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광주·전남 곳곳에서 지난 주말인 25~26일 내내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50분께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단지 뒤편 밭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A(8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밭두렁에서 잡풀 등을 태우다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24일 정오께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에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시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일인 26일에도 광주·전남에서 화재가 이어졌다. 26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건물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날 오전 11시 10분께는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대나무숲에서 불이 났다. 대나무 숲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음식점 창고로 옮겨 붙었으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순천에서는 오후 1시 40분께 농산물 소각 중 불이 번져 소방에 신고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화장시설 허가 미끼 뇌물 받은 전 고흥군 공무원 징역형

화장장 설치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66)씨와 건설업자 B(72)씨에게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억 3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을, 추징금 1억 4180만 원과 44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 C(67)씨에게도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 163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화장장 사업자 C씨에게 고흥군청 행정과장 A씨를 소개하면서 “군수의 오른팔이다. 과장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 챙겼다. A씨는 퇴직 후에도 C씨에게 “화장장 설치 허가를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수차례 사례금 및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신축원룸(상가) 매매

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임대걱정없음

▶ 월수익 → 750만 (년9,000만)

시세 19억
급매 14억5천 (융7억)

상가매매(상무지구)

▶ 중심 상업지구 (유흥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융4억)

(보3천, 월수익 380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010-2614-9801